

인터네셔널 탄츠메세  
컨퍼런스

# 한국과 유럽의 공연예술 교류 현황과 소개

2008년 8월 29일 (금) 13:00

장소 : R-Forum, NRW Forum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예술경영지원센터

협력 : international tanzmesse nrw, 베를린 한국문화원

- **SPEAKERS**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부교수)

박성혜(공연예술전문잡지 판 발행인)

- **MODERATOR**

송애경(서울세계무용축제 사무국장)

- **PANELISTS**

전인정(안무가&무용수, Blue Elephant Company 공동대표)

Bertram Muller (tanzhaus nrw 예술감독, 창립자)

# 목차

1. 컨퍼런스 구성 ...5
2. 개요...6
3. 한국 공연예술시장과 그 구조 ...7
4. 한국 무용시장과 그 구조 ...8
5. 사례발표 ...17
6. Q & A ...19
7. 단체소개 ...21
- 첨부) 발제자 · 사회자 소속 및 주요 이력 ...23



## 1. 컨퍼런스 구성

| 구분     | 소요시간 | 세부내용  | 비고                       |
|--------|------|---|--------------------------|
| Part 1 | 20 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공연예술현황 전반 소개</li> <li>· 공연단체, 공연장, 축제, 관객</li> <li>· 지원금 및 지원기관</li> </ul>                                   | 발제 이승엽                   |
| Part 2 | 20 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무용현황 전반 소개</li> <li>·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 발전사 및 현황</li> <li>· 한국-유럽의 무용교류 현황 및 발전 가능성</li> </ul>                     | 발제 박성혜                   |
| Part 3 | 20 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현대무용의 국제교류 현황</li> <li>·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무용가의 독일활동 케이스 스터디</li> <li>· 독일 현지 무용관련 전문가의 케이스 스터디</li> </ul>        | 사례발표 전인정, Bertram Muller |
| Part 4 | 30 분 | Q&A   | 전원                       |
| Part 5 | 20 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츠메세 참가 한국무용단체 소개</li> <li>· 이선아 무용단</li> <li>· 최경실 무용단</li> <li>· 신은주 무용단</li> <li>·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li> </ul> |                          |

※ 사회: 송애경

## 2. 개요

by 송애경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공연예술이 차지하는 존재감은 거의 없거나 극히 왜소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비언어 퍼포먼스, 타악 퍼포먼스, 마임, 비보이 퍼포먼스 계열의 작품들이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과 몇몇 국제 페스티벌에서 조명을 받았지만, 이는 한국 공연예술계의 모습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또, 무용수 및 음악인들이 세계 유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우수성이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공연예술계의 왜곡된 현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부단한 노력과 공연계 전체의 체질 개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즉, 커다란 밑그림 속에 치밀한 전략을 갖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탄츠메세 행사의 일환으로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자칫 왜곡되거나 기형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한국 공연예술, 특히 무용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한국에 진출하거나 교류를 희망하는 유럽 무용관계자들의 관심을 극대화 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3. 한국 공연예술시장과 그 구조

by 이승엽

한국의 공연예술시장은 사회의 역동성만큼이나 빠르고 큰 폭으로 변화해왔다. 한국과의 예술교류를 위해서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하는데 그 속도감을 느껴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공연예술 시장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 창작-매개-향유의 각 단계의 주체들과 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여기서 주체들이란 공연단체, 공연장, 정부(중앙 및 지역), 축제, 관객 등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공연예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공연예술시장의 양적인 확대와 동행한다. 아이러니다.

공연예술의 이슈로 교류의 불균형(여러 차원에서), 아시아와의 협력 등을 제시하며 기본적으로 쌍방향적인 교류도 상기시킨다.

## 4. 한국 무용시장과 그 구조

by 박성혜

- 한국 컨템포러리 무용 발전사 및 현황
- 한국-유럽의 무용교류 현황 및 발전 가능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용평론을 하고 있는 박성혜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한국의 현대무용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과 독일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공연문화,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현대무용에 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수많은 춤들이 전해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연 형태와는 다른 많이 다른 모습으로 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양한 춤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무대가 아닌 마당이나 작은 방에서 공연되었고 춤추는 무용수들도 주로 궁중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이거나 평범한 서민들, 무당, 혹은 기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100년 전에 춤추었던 사람들을 만나 볼까요?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았던 관계로 한국 내에서의 춤에 대한 이미지는 무척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춤은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용 발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지요.

이 문제를 한국은 1963년에 서울에 위치한 이화여대에서 무용과를 정식으로 신설하면서 풀어나가기로 합니다. 당시 이 방법은 무척이나 효과적이었고 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이나 긍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무용은 대학에서 권장하는 학문의 하나가 되었고 덕분에

춤추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춤이 제대로 된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빠르고도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춤에 대한 인식 향상과 무용인구 증가에는 성공했지만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즘에서 벗어나 전문 무용인 양성에서는 자체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학교를 벗어나지 못한 모범생으로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춤을 고전발레와 한국무용, 현대무용이라는 세 부류로 나누어 분류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분류에 기초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무용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한국무용 중 한국의 전통춤을 기본으로 새롭게 창작되어지고 있는 춤들 중 일부를 포함하겠습니다.

1960 년대에 한국에 처음 소개된 현대무용은 미국의 마사 그레이엄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960 년대와 70 년대의 모든 현대무용 공연이 마사 그레이엄 테크닉을 기초로 한 공연이었으니 말이죠.

여기에 한국 창작춤의 새로운 변화가 더해집니다. 바로 이전까지 전해져 왔던 한국 전통춤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1970 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춤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새로운 춤의 특징은 한국춤 동작과 기본 박자는 충실하게 살리지만 춤이 표현하는 주제와 내용은 지극히 현대적이란 것입니다. 또한 전통춤이 가지고 있는 동양적 우주관과 원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 춤은 무척이나 독특한 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한국의 모든 무용인들이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춤에 대한 원형 보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그 방향성에 대해 의혹을 감추지 못하는 무용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춤들은 이후 한국춤에 한 방향으로 자리매김 되고 현재에도 많은 무용가들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번 행사에 소개되고 있는 무용가 신은주 씨의 작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신은주의 작품은 비교적 최근작이지만 초기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대무용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마사 그레이엄 스타일에 안녕을 고했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그 일등 공신은 피나 바우쉬였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안무가들은 현대무용이 모두 마사 그레이엄의 춤처럼 추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춤이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탄츠테아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미국 현대무용과 유럽 현대무용의 공통점과 다른 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춤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공연되고 있는 현대무용은 특정 테크닉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춤이 되었습니다.

### <한국에서의 작품제작 및 공연 현황>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어떻게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은 어떠한가입니다. 한국에서는 흥미롭게도 무척이나 특이한 작품 제작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50 여개의 대학 무용과와 이에 근거를 둔 수백여 개의 대학 무용단체가 있습니다. 그 수는 2007 년 기준으로 409 개의 무용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2007 공연예술 실태조사> 문화관광부) 그중 국립과 시립, 도립무용단과 약간의 개인 무용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학을 토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2006 년에 공식적으로 공연한 공연물과 횟수는 연 1059 회 공연, 2085 회이었습니다. (<2006 년 문예연감>, 문화예술위원회)

이러한 개인단체와 대학 무용 단체가 정부와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여러 기금을 토대로 창작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을 받지 못했다고 공연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지급하는 기금이 늘어남으로써 점차적으로 기금 수혜 단체와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기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이 2,000,000 \$ 정도가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과 문화관광부에서 지급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문화재단과 같은 지역 기금, 기업 재단과 각종 문화관련 행사 지원금까지 다양한 지원금들이 무용가들에게 직간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sup>1)</sup>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무용가들은 이렇게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작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무용가들은 상당히 좋은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그리고 어떤 춤을 출 것인가에 대한 창의성에 관해서도 무척이나 많은

자유로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엄청난 양적 확대에 비해 각 무용단의 재정적 자립도가 낮다는 점과 개인 후원 제도가 정착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외의 제작환경을 살펴보면 몇몇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개인 공연과 기획 공연을 막론하고 대부분이 대관 공연이라는 점 때문에 작품제작에 있어 공연장의 대관료 비중이 무척이나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객들 대부분이 대학 무용과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있어 관객의 편중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신작 중심의 공연과 짧은 공연 횟수, 서울 편중의 무용 공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전통춤보다도 현대무용과 고전 발레가 수도권에서 인기가 많아 서울에서 주로 공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확대해 인접 지역까지 무용 공연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며 지방 순회공연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무용가들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작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대학 중심에서 진행되어 오던 무용공연과 제작 형태가 독립된 안무가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1990 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전문단체 안무가들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첫 세대로 꼽는 무용가들이 바로 댄스씨어터 온, 안애순무용단, 독일에도 여러 번 소개된 안은미무용단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더욱 강해져 많은 젊은 안무가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린 단체들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취직이 안 되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쨌든 최근의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 그룹들은 점점 대학에서 독립되어 독자적 활동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라는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예술적 합의에 의해 모인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는 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활동의 내용을 보고 재정적 지원을 협조할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KIDE(Korea International Dance Event) 행사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해외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는 CID-UNESCO(Council Internat De la Danse), WDA(World Dance Alliance), ITI 무용분과 등이 활동하면서 한국과 해외의 여러 형태로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에는 국제무용축제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SIDance(Seoul Internation Dance Festival)가 가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올해로 11년을 맞이한 이 축제를 통해 여러 나라의 무용가들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주로 현대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럽은 물론, 아시아, 미국, 호주,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나라들의 프로그램들이 매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기 마랭, 필립 드쿠플레, 데시가와라 사부로, 조셉 나주, 앙즐랭 프렐조카주, 장-클로드 갈로타, 아크람 칸 등 수 많은 무용가들이 이 축제를 통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 SPAF(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와 MODAFE(Modern Dance Festival)가 있습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연극과 무용을 모두 소개하는 행사로 현재 한국에서 그 재정적 규모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Modafe는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진행하는 행사로 5년 전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빔 반데키부스, 제롬 벨, 에미오 그레코 등 많은 안무가들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안무가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안무가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새롭게 진행된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Spring Wave Festival)을 통해 레이몬드 호게, 윌리엄 포사이드 등이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교류의 두 번째 형태로는 극장 초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예술의전당과 LG 아트센터(LG Arts Center)가 대표적인데, 예술의 전당이 고전 발레와 안 파브르와 같은 현대무용을 절충적으로 초청한다면 LG 아트센터의 경우 대부분이 현대무용을 초청합니다. 이곳에서는 2000 년에 개최된 피나 바우쉬의 극장 개관기념 공연이 상징하듯이 서울에서 매년 세계 현대무용의 주요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현대무용 안무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무가로는 사샤 발츠, 세드 라 베 무용단, 안느 테레사 케이르스마커, 빔 반데키부스, 오하드 나하린, 랄라라 휴먼 스텝, DV8 등 많은 안무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에서도 피나 바우쉬는 이미 1970 년대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초청되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단체로 국내에서의 폭 넓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LG 아트센터에만 여러 번 초청되어 공연되었는데 개관 공연 <카네이션>을 비롯해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 <러프 컷(Rough cut)>이 LG 아트센터의 의뢰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서 한국의 여러 극장들이 현대무용 안무가들의 작업에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으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지방의 여러 공연장들이 안무가들을 독자적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모리스 베자르, 메레디스 몽크, 제롬 벨, 장-크리스토프 마이요 등 여러 안무가들이 초대되었고 앞으로도 그 수가 증가할 추세입니다.

극장 간의 공동 기획 및 제작, 프로그램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예정인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캐나다, 일본의 3 개국의 3 개의 극장이 서로 연계되어 공동 기획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Dance Exchange Program'이 있습니다. 서울, 몬트리올, 도쿄에서 각각 진행되는 무용기획으로 3 국의 현대무용을 모아 10 월부터 순차적으로 각 극장에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서울은 LG 아트홀, 일본은 아오야마 극장, 몬트리올에서는 탄젠트 극장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3 개국의 현대무용을 한국, 일본, 캐나다 극장에서 공동으로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안무가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초청 공연, 공동 제작, 무용수 교환, 워크숍, 혹은 해외 무용단에 무용수로 활동하는 것 등 그 내용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제롬 벨의 작품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의 경우, 서울에서 한국 안무가 사사가 피처링을 해서

공연한다든지, 한국의 안은미의 작품들이 부퍼탈의 피나 바우쉬에 의해 초청 공연되고 있는 점들, 장-클로드 갈로타와 김희진 공동 제작, 미샤 푸루커와 한국의 LDP 무용단의 공동 작업, 한국 안무가 김매자와 카롤린 칼송의 상호 초청 공연, 올해 진행될 김윤진과 미국 안무가 딘 모스와의 공동작업, 백남준 아트센터가 초청하는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공동 제작 등과 이외에도 각종 워크숍을 위한 무용가 초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2002 년 프랑스 리옹 댄스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의 홍승엽, 김매자 등이 초청되어 공연이 이루어졌고 2005 년 프랑크푸르트 무종투름에서 진행된 ‘댄스 미팅 코리아(Dance Meeting Korea)’에서는 많은 한국의 현대 무용가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비뇽, 에딘버러 프린지 등에도 많은 안무가들이 본격적 유럽 진출을 희망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무용가들도 많아져 세 드 라 베 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한 김남진과 예효승, 안 파브르와 작업한 무용수 허성임 등등 많은 무용수들이 유럽의 크고 작은 단체와 관련을 가지면서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 전인정도 있습니다. 그녀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전인정 님께서 직접 자리를 해주셨기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해외 진출과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무척이나 적극적입니다. 수많은 국제 무용관련 기관의 관계자들, 축제와 극장의 프로그래머들, 안무가와 무용수들은 유럽의 무용 안무가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위기는 무척이나 일반화되어 있고 한국의 정부, 행정가, 무용가 등 모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관심을 두고 시선을 주는 것은 바로 무용 관련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유로는 공연과 워크숍, 공동제작 외의 다른 형태의 교류로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새로운 영역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일차적 계기는 피나 바우쉬의 작품 <러프 컷>의 성과였습니다. 피나와 그녀의 무용수들이 함께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을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물이 소재된 작품에 가치를 높게 파악했고 짧은 기간 공연형태를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레지던시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유하고 레지던시 참가자들이 공통의 경험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보다 깊은 교류를 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작년 경기문화재단에서 국제 무용 레지던시 프로그램 ‘땅따먹기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앞서 잠시 소개한 안무가 전인정 님이 예술감독을 맡아 진행하였기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나누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 제작 작업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구요. 이러한 예술가들 간의 교류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단되어진 레지던시에 대해 한국은 무척이나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예술가와 행정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정착되기 시작한 무용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성격과 내용이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무용가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고픈 열의가 대단해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러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 작품 창작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 모색, 새로운 언어 찾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무형의 교류 외에도 안무가와 무용수, 그 외 관련 예술가들 간의 다양한 인적교류의 효과적 방법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한국의 현대무용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열려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무용가들은 호기심이 많으며 모험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환영으로 맞아 줄 겁니다. 그리고 춤으로 함께 모인 그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가, 국경이, 인종적 차이가 필요 없는 춤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면 문화관광부 국고사업과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관련 사업에 관한 약간의 기금과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고양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CJ 문화재단 다음세대재단 등에서 무용관련 직접 지원이 진행 중이며, 지자체 내의 문화예술 관련 기금이 2008 년 현재 무용관련 진행 사업 기준으로 한국 전역에 걸쳐 무용관련 지원 기금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 외에도 지역자치제에 의한 지역 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5. 사례발표

by Bertram Muller, 전인정

- 한국 현대무용의 국제교류 현황
  -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무용가의 독일활동 케이스 스터디
  - 독일 현지 무용관련 전문가의 케이스 스터디

Bertram Muller :

2 명의 발제를 듣고 아마도 한국의 무용공연의 구조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처럼 무용도 빠른 속도로 변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무용은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긴 역사의 전통예술 춤이 함께 공존 하고 있는 매우 드문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의 학교에 있는 무용과정 프로그램에서 전통을 가르치고 있고, 그 수준이나, 그 엄청난 수를 보나 얼마나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정신 차리고 이런 한국의 10 년간의 발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한국 무용수들이 유럽의 무용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예술 전통 현대 춤 공연에 반했습니다. 10 년 전 한국의 현대무용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매우 수준이 높았습니다.

전인정을 지원할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안무가들 지원할 때 가끔 매우 힘들기도 하지만 전인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재능이 있었고 혼하지 않게도 같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앞으로 교환하는 부분은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정 :

제 경험을 나누자면 저는 독일에 와서 탄츠하우스에서 베트람이랑 같이 일하고 있으며 온지 약 8 년 되었고, 유럽에서의 경험이 있고 유럽의 정보를 한국에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던 땅따먹기 프로그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 명의 유럽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한국 8 명 아티스트 와 함께 땅따먹기라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레지던스와 리서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형식을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유럽, 미국의 스타일에서 벗어나보고자 했습니다, 각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른 고유한 문화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안무자들에게 특수한 상황이 낯설었겠지만 꼭 필요했다고 보고 무언가 새롭고 다른 것을 거부감 없이 시도 할 수 있게 마음이 열렸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Bertram Muller :**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아티스트의 생성은 대학에서 책임지고 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예술인들에게는 다른 예술가 다른 얘기, 교환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어떤 기관에서 투어 제의를 했습니다. 2010 년 관심이 있는 유럽 26 명의 디렉터를 중심으로 한국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유럽의 지역을 투어하고 제가 준비하던 댄스페어 역시 한 5 단체 정도를 조직해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아티스트들이 유럽에게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줄 정확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춤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그들의 미학, 그들의 전통과 그것이 어떻게 현대와 함께 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같이 참여하고 싶은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관련이 있고, 제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델픽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경쟁과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선보일 문화올림픽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2009 년에 9 월 15 일부터 10 일간 열릴 델픽의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상만 위원장은 델픽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그의 한국문화와 국제문화의 이해도와 현명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Wise Lee 로 부르게 만들 정도의 사람입니다. 국제적인 공연과 아트 프리젠테이션,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매우 우수하게 델픽을 치를 것이라고 봅니다.

## 6. Q & A

### Q 1 : Foras Hahni (발레 탄츠 기자)

공동 작업을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총당되니까?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사는데 유럽외의 지역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면 비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됩니까?

### A : Bertram Muller

한국 유럽 간의 비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티스트를 오랜 기간 동안 체류 해야하는 예산비용을 어떻게 총당하는가. 그리고 집중도 있고 경제적으로 투어를 구성 해야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 A : 이승엽

축제에서 일했던 개인 경험을 이야기 드립니다. 축제 등에 초대 되면 항공료를 비롯한 여행비 지원 정부 국제교류재단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및 현지 체류비는 축제에서 지원 했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비자는 있어야 합니다.

### Q 2 : Wilson David (안무, 무용가)

전인정씨께서는 독일에서 더 좋은 창작활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독일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과 독일이 무용을 창작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습니까?

### A : 전인정

한국에서 공연하면 공연장 렌트 부터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공연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정치적인 사회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사회적 제약이 있는 반면 여기서는 더 자유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예, 아니오나 이것, 저것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 Q 3 : 송애경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일 해봤고, 외국 아티스트들과 일 해봤는데 차이가 있었는지요?

**A : 전인정**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다릅니다. 그냥 다르고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 나는 한국적이기도, 그렇다고 이국적이기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A : Bertram Muller**

조금 덧붙이자면, 아트디렉터의 눈으로 그녀의 여기서의 성장과정을 바라보면 그녀는 처음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무용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의 경험 아마도 프레젠테이션에서 잠깐 얘기가 된 한국의 60년대 사회적인 분위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그 후 콜리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연기자, 비디오 아티스트, 무용수, 뮤지션과 상호관계 하면서 작업할 기회가 있었고 매우 뛰어난 작업을 했고 그 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매우 감각적이고 친밀한 작품을 하는 것으로 4 단계를 거쳐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한국에서는 어떤 발전단계를 거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기회들을 경험하면서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 7. 단체소개

지금부터 올해 탄츠메세에 참가하여 쇼케이스를 선보일 한국 무용단체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계획으로는 안무자와 무용수들을 직접 소개해 드릴 예정이었으나, 오늘 저녁 6 시부터 쇼케이스가 진행되는 관계로 현재 리허설 중에 있습니다. 대신, 쇼케이스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공연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단체는 <최경실 무용단>입니다. 이 단체는 가장 탄츠메세와 인연이 깊은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 년도 탄츠메세에 참가한 이후, 스위스, 독일,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탄츠메세에는 2 번째 참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아 올해의 안무가상을 2007 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시댄스 등 국제축제의 초청도 다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소개해 드릴 쇼케이스 작품 <물 줌 주소>는 한국의 락 가수 한 대수의 노래와 동일한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 가수의 노래를 사용하며 <갈증>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경실은 늘 평범한 주제로 삶의 심오한 의미를 표현하는 특별한 재주를 지닌 안무가입니다. 화면으로 이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단체는 <신은주 무용단>입니다. 앞서 박성혜 무용평론가의 발제에서도 들으신 바 있겠지만, 안무가 신은주는 한국 전통무용을 전공하고 이 전통 메소드와 동양철학에 기반 한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의 새로운 영역을 일구고 있는 안무자입니다. 이는 클래식 발레로부터 성장한 서구 컨템포러리 무용과는 매우 다른 형식으로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형식의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무가 신은주는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야 하는 국가 주요행사의 안무자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 년 FIFA 월드컵과 14 회 아시안 게임의 오프닝과 클로징 세리모니 등 문화행사 조안무를 맡아 추진한 경력이 특별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 시 탄츠 하우스 스몰 스테이지에서 만나실 작품의 제목은 <Flost>입니다.

이제 한국의 주목받는 젊은 안무가들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이들은 오늘 뒤셀도르프 공연 이후에 유럽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안무가로 성장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선아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한국의 무용인들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안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수학중인 그녀는 Yokohama Dance Collection 2007 에서 the first prize winner of the French Embassy Prize for Young Choreographers. 이 상의 부상으로 유럽연수 기회를 제공받아 프랑스와 핀란드 등지에서 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풀문댄스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은 그녀의 춤에 대해서 “<Performing Dream> is about a dream of a dancer who is nervous and not able to fall asleep the night before her performance” 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선보일 작품은 신세대다운 신선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 마이 라이프 무브먼트 시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떠오르는 젊은 안무가를 발굴하는 컴페티션에서 수상 하면서 국제무대 진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7 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시행한 젊은 안무가 발굴 프로그램인 서울댄스컬렉션에서 1 위를 수상하였고, 2008 년 일본의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의 부상으로 유럽연수 기회를 부여받은 <오 마이 라이프 무브먼트 시어터>는 2009 년부터 유럽무대에서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무가 박영준은 암스테르담과 브뤼셀에서 안무가로 활동중인 David Zambrano 의 댄서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탄츠메세 쇼케이스로 오늘 저녁 6 시와 9 시 000 에서 공연될 작품은 바로 서울댄스컬렉션에서 수상한 <Transforming View>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밤 6 시와 9 시 파브릭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작품은 최경실 무용단, 이선아 무용단,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무용단입니다. 9 시 탄츠메세 소극장에서는 신은주 무용단의 쇼케이스가 진행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을 무대에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첨부) 발제자 · 사회자 소속 및 주요 이력

### 이승엽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졸업 (석사)  
프랑스 브루고뉴 대학 (DESS 학위)  
한국예술종합학교 부교수(2002~)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부처장(2007~)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단장(2006~)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예술감독(2007~)  
울연극협회 이사 및 편집주간(2007~)

### 박성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무용전공 석사  
월간 무용전문지 <몸> 편집장 (1995~2004)  
경희대 행정대학원 예술경영대학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원 등 강사 (2004~2006)  
경기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 주최 무용 레지던스 프로그램 총감독(2007)  
공연예술전문지 <판> 발행인(2007~)

### 송애경

미국 뉴욕주립대학원 (Albany) 연극학과 졸업 (문학석사)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사무국장(1997~)  
한일공연예술교류협의회 대표(2003~)  
Playbill Korea 편집주간(2003~)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부이사장(2004~)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주최 '서울어린이연극상' 심사위원(2004~)  
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 부회장(2008~)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주최 '아시테지 축제' 작품선정위원(2008~)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시간강사(2005~)

# 크레딧

2008 인터네셔널 탄츠메세 컨퍼런스  
한국과 유럽의 공연예술 교류 현황과 소개

주관 \_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_ 예술경영지원센터

협력 \_ international tanzmesse nrw, 베를린 한국문화원

발제 \_ 이승엽 [lsy@knu.ac.kr](mailto:lsy@knu.ac.kr)

박성혜 [gissell@naver.com](mailto:gissell@naver.com)

사회 \_ 송애경 [aeikyung@yahoo.co.kr](mailto:aeikyung@yahoo.co.kr)

패널 \_ 전인정 [boulangier@gmx.de](mailto:boulangier@gmx.de)

Bertram Muller

컨퍼런스기획 \_ 예술경영지원센터

\_ 우연팀장(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팀) [weon@gokams.or.kr](mailto:weon@gokams.or.kr)

\_ 송밝은(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팀) [bes271@gokams.or.kr](mailto:bes271@gokams.or.kr)

\_ 김유정(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팀) [yoojung@gokams.or.kr](mailto:yoojung@gokams.or.kr)